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



무소속 강운태 후보.

# 새정치 바람 對 단일화 바람

## 무소속 단일후보 강운태 확정...광주시장 선거 진검승부 시작

광주시장 선거를 8일 앞두고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무소속 단일 주자인 강운태 후보의 물러설 수 없는 진검 승부가 시작됐다.

광주시장 선거 결과는 광주의 정치 지형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력 구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장 선거 판세=일단 후보단일화 바람을 업은 강운태 후보가 우세한 형국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이를 반영하듯, YTN이 여론조사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23~24일 광주 유권자 7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소속 후보가 강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강 후보(47.5%)는 윤 후보(23.7%)를 더블 스코어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12~13일 광주 유권자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5.7% 포인트, 응답률 21.1%)를 실시한 결과, 강 후보로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되면 강 후보 32.2%, 윤 후보 24.4%로 강 후보가 7.8%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 측에서는 그동안 지지율에서 항상 앞서온 상황에서 후보단일화 효과에

### “정권교체 진원지 되달라”

### 새정치연합尹승리 올인

### “전략 공천 심판 해달라”

### 姜 잇단 여론조사 앞서

‘전략공천 심판’이라는 강력한 전선이 형성됐다는 점을 들어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후보단일화로 광주시장 선거 구도가 3자구도에서 양자구도로 급변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동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치열한 경합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지금도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선거 막판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역전승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검 승부=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무소속 단일화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방선거에서 승리 하더라도 광주시장 선거에서의 패배는 안철수 공동 대표 등 지도부에 치명적인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과 윤장현 후보 측에서는 광주의 승리가 정권교체의 기반이 된다는 점과 변화의 바람으로 광주를 바꿔야 한다며 광주민심에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공동대표와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선거 막판 윤 후보 지원에 나서는데 중앙당의 지원도 계속된다.

하지만 새정치 바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이에 맞서, 강 후보 캠프에서는 후보단일화 바람을 토대로 ‘전략공천 심판’의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폭격에 맞서 광주민심의 정의감과 힘을 보여주자는 논리다.

전략공천의 승리는 광주시민의 패배로 연결된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거 캠프를 기존 조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과 함께 광주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용섭 전 의원과 선거 막판까지 광주민심의 바닥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은 강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성향 다른 지지층 화학적 결합이 과제

## 단일화 파괴력 얼마나 될까

강운태-이용섭 후보간 무소속 단일화가 성사됨에 따라 후보 단일화가 갖는 의미와 본선에서의 파괴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보 단일화 의미=무엇보다 광주 시장 선거전이 무소속 강운태 단일후보 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의 실질적인 양자구도로 재편됐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강력한 무소속 후보들이 단일대오를 형성,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와 대결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선거 구도가 단순화되면서 강운태 무소속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심판’이라는 강력한 전선을 형성하게 됐다. 여기에 강운태-이용섭 후보의 단일화는 그동안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흥행에도 성공, 무소속 바람을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 단일대오 강력한 전선 형성

### 잡음 없이 흥행도 성공

### 시너지 효과 상당할 듯

무소속 후보 단일화가 별다른 잡음 없이 깨끗하게 이뤄진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단일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며 “어찌됐던 단일화 바람은 광주시장 선거 결과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파괴력은 얼마나=우선 단일화에서 분부를 삼킨 이용섭 후보와 강운태 후보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이 이뤄져야 한다. 이 후보와 강 후보 지지층 성향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다 단일화 결과에 대한 이 후보 지지층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단일화 발표 직후, 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밀실아합 공천을 심판하겠다’는 강력한 입

장을 밝힘에 따라 지지층 결합의 첫 단추는 켜졌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 진영에서는 후보단일화 바람으로 ‘전략공천 심판’이라는 민심의 공감대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이미 대세가 형성됐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결과, 강운태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를 앞서 온데다 후보단일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에 날개를 단 격이라는 자체 분석도 내놓고 있다.

강운태 후보의 단일화 바람에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 측에서는 광주 민심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변화의 바람’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강 후보의 과거 이미지와 윤 후보의 변화 이미지와 강 후보 지지층 성향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다 단일화 결과에 대한 이 후보 지지층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단일화 발표 직후, 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밀실아합 공천을 심판하겠다’는 강력한 입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이용섭 후보 ‘아름다운 퇴장’

“지지해주신 시민들에 죄송...姜후보 승리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무소속 강운태 단일 후보 결정에 승복한 이용섭 후보는 26일 강 후보와 공동기자회견에서 감정이 복받쳐서인지 눈물을 흘렸다.

애써 감정을 추스린 그는 “저를 그동안 지지해주신 지지자들과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고맙다”고 첫 마디를 냈다. 그리고는 “강 후보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양 측 지지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48시간 철야 인생투어’를 한 탓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단일후보가 돼 광주의 혼을 다시 세우고, 제가 품은 비전을 광주에서 펼쳐내고 싶었고, 당당하고 자랑스런 광주를 만들어보고 싶었다”면서 “그러나 저는 또 실패했고 이는 광주의 역사, 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던 그는 강운태 단일 후보 결정에 승복하면서 두 번째 도전했던 광주시장 ‘꿈’을 접고 이제 평범한 광주시민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후보의 인생은 도전의 역사였다. 18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을에 출마해 여의도에 입성후 19대까지 재선의원이 됐다. 2010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당시 ‘윤명의 라이벌’이 된 강운태 후보와 경쟁했으나 간발의 차이로 ‘석패’ 하며 광주시



장의 꿈을 접어야 했고, 지난해에는 당권 도전에 나서 김한길 대표와 한판 승부를 벌였지만 패했다.

이 후보는 4년 전 광주시장 경선 패배를 거울삼아 ‘와신상담’하며 이번 광주시장 경선을 치열하게 준비해왔으나 안철수 대표의 전략공천으로 당을 탈락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윤장현 후보 지지를 선언해 ‘분류’를 삼켰다는 후문이다.

이 후보는 단일 후보 결정으로 후보직은 사퇴하지만, 강운태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혀 당분간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후보는 경선없이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한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큰 만큼 무소속 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장관, 국회의원, 시장 후보 등 그동안 제 앞에 나열된 모든 수직어는 내려놓고,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깨어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그 속에서 광주를 위해, 또 대한민국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단일화 결과에 깨끗한 승복을 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이 후보에게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수백명의 지지자들은 ‘이용섭’을 연호하며 이 후보를 위안했다. /최권일기자 cki@

평생 잊지 못할 허니문 여행!  
이제는 가까운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에서  
알차게 준비하세요!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충장점  
062) 228-1199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충장점**  
**OPEN EVENT!**

6월 30일까지 이벤트 제공!

**방문 EVENT!**  
!!! 무료 카페 무료 음료권 증정 **!!!** 여행용 트래블 팩 증정

**예약 EVENT!**  
!!! 상당 최대 하나투어 50만 마일리지 적립  
**!!!** 상당 10만원 상품권 제공  
**!!!** 지역별 다양한 특선 및 추가 할인 제공  
**!!!** 필립스 전기 포트 제공 **!!!** 영화 예매권 제공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전 화 | 062) 228-1199 주 소 |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